안철수 대표 광주방문 때 행패 부린 10명이 새정치연합 당원

경찰, 조직적 개입 정황 포착 수사 확대

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 22명 무더기 입건

남부경찰 전담팀 꾸리고 금전 지원 여부 등 조사

경찰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 광주 방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22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지난 17일 열린 안 대표의 방송사 대담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방송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강운태·이용섭 시장 선거 후보 캠프 측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을 잡고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안철수 공동대표와의 대담 프로그램 진행을 방해하고 대담 뒤 방송사를 나서는 안 대표 차량을 막고 달걀을 던지는가 하면, 수행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이모(43)씨 등 2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거쳐 당시 현장에 있던 50~60여명 중 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 감금·폭행·일반교통 방해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10명은 새정치연합 소속 당원임에도, 공동대표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안 대표 동선을 사전에 알고 서로 연락을 취하며 조직적으로 행사를 방해한 점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받게될 형사 처벌 감수 의지 등을 감안,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전적 지원 약속이나 조직적 방해 지시 등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4명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시지 기록을 복원, 달아난 7명의 신원 확보에도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제 1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위해 행위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더기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데 따른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몇몇은 강운태·이용섭 캠프 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들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無 선거 한다더니…

"선거 소음 괴로워"

광주 시민들 민원 줄이어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6·4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선거 소음'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감안, 이번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로고송·율동·확성기 없는 이른바 '3무(無) 선거운동'을 치르겠다던 각 후보자들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됐다.

27일 광주지역 각 구청·경찰서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난 22일 이후 이들 기관에 접수된 선거 관련 민원 건수는 하루 평균 5~10건.

민원 내용으론 유세차·확성기 소음을 포함한 교통 불편·교통사고 위험 등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소음 관련 민원이 10건 중 6~7건으로 가장 많다.

현행 선거법상 ▲연설·대담 시간은 오전 7시부~밤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연설·대담은 오전 6시~밤11시 ▲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은 밤 9시까지 허용된다.

문제는 선거법에 유세차·확성기 연설 등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유세차 로고송·율동 등은 사라졌지만 확성기·유세차를 이용한 후보자간 연설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시민들은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수는 시장(7명)·시교육감(5명)·구청장(16명)·시의원(59명)·구의원(132명)·비례대표 시의원(8명)·비례대표 구의원(17명) 등 244명.

북부경찰 앞 사거리 주변에서 사는 주민 김모(45·북구 오치동)씨는 "밤샘 근무 후 집에 들어와 자려는데, '○○○ 후보입니다. 지지 부탁 드립니다'라는 멘트가 계속 들려와 잠을 자지 못했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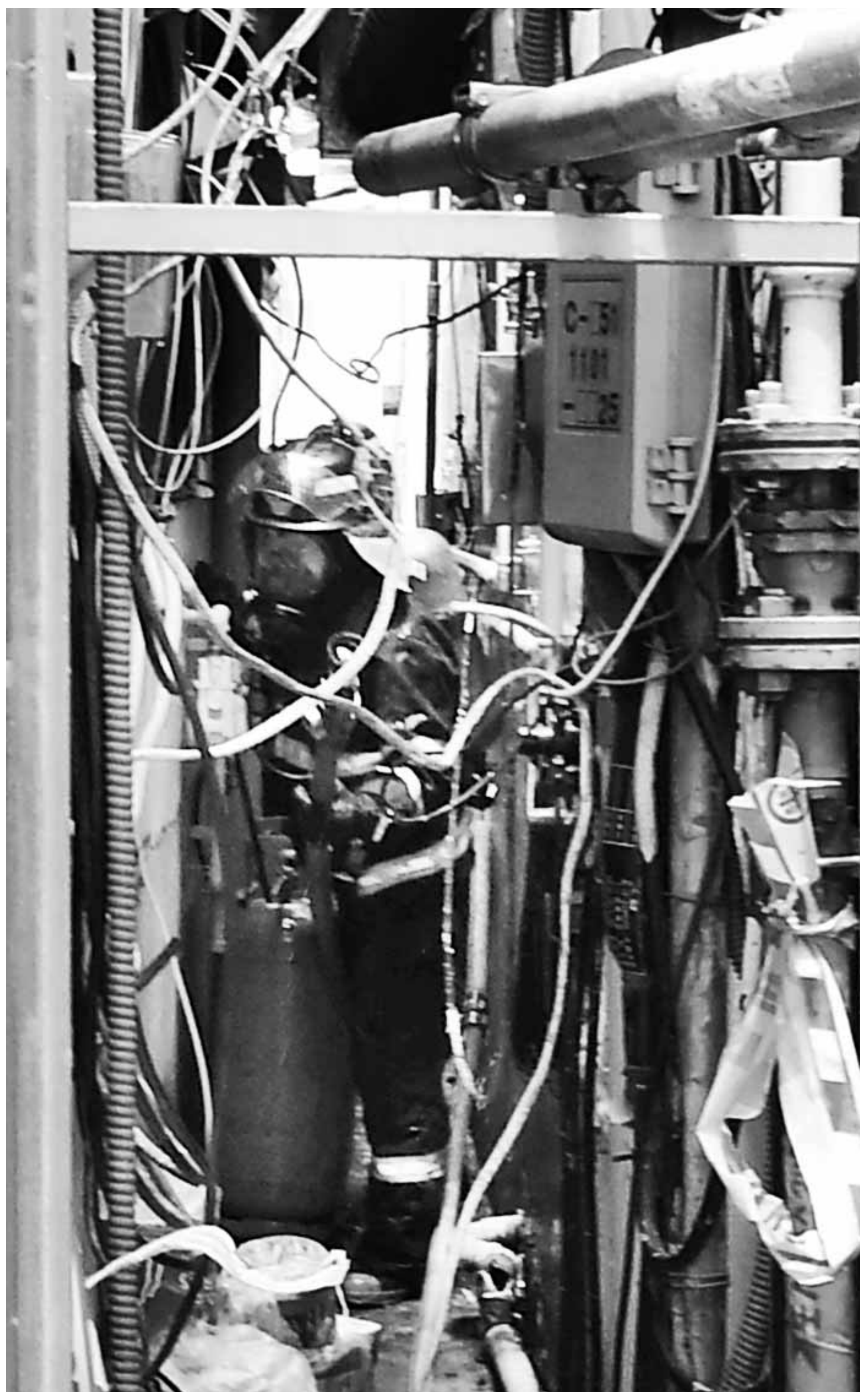
주민 박모(42)씨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더니, 벌써부터 거짓말이냐. 이런 후보는 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를 항의하는 주민과 선거운동원 간 마찰도 잦다.

주민 정모(35·서구 화정동)씨는 "한 후보의 홍보 소음때문에 베란다와 거실문까지 다 닫아도 시끄러웠다"며 "직접 가서 항의했지만 한 선거 운동원으로부터 '선거 유세는 우리 권리'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후보자에게 연락을 취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



도심 상가 화재…"하마터면" 27일 오후 12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한 뒤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병언 눈뜨고도 놓친 검찰

순천 구원파 신도 운영 식당만 둘러보고 집 수색은 안해

검·경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돼…CCTV 분석 뒤늦은 추적

세월호 실질적 소유주로 파악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수사망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검·경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씨 검거에 실패하는가 하면, 빈약한 정보 탓에 조속한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머무르는데도 못 잡았다?"=유 전 회장 부자 소재 파악 과정에서 검·경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조속한 검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7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지난 21일 순천시 서면 송치재 휴게소 인근의 구원파 '신도'의 식당과 집에 머무르다가 이동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 나섰었다.

경찰 측 말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뒤 이 첩보를 입수, 광주지검 순천지청 협조를 받아 수사관을 보냈지만 식당 외 50m 가량 떨어진 집 수색은 하지 않은 채 돌아왔다는 것이다. .

검찰은 이후 지난 25일 또다시 현장을 찾아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집까지 수색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다. 현장에선 유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검찰이 A씨 집에 대한 수색만 제대로 했어도 유 전 회장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유 전 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무능력'을 세금으로 메우려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1500명을 투입, 순천 등 전남지역에서 유씨가 은신처로 삼을만한 3500개소에 대한 검문 검색을 진행했었다. 경찰은 이때에도 검찰과 유씨 소재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순천 구원파 소유 부지에 대한 정밀 검색은 하지 않았다.

◇승용차 추적하고 CCTV 까고=전남경찰은 27일 1500명을 투입, 순천·구례·여수·광양 등 6개 지역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했다. 송치재 인근 야산에 대한 정밀 수색도 진행중이다.

유 전 회장 부자를 도와 함께 움직이는 일행 숫자를 감안해 비슷한 인원이 탄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순천 식당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유씨를 도와주는 이들의 신원 파악도 진행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유 전 회장 장남 소유의 수입 승용차가 순천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 방범용 CCTV를 통해 이동 경로도 파악하고 있다.

검·경 수사팀은 아울러 최근 붙잡힌 '신도' 추모(61)씨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씨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유씨 측에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도주로 파악에 나섰다. 이 차량은 지난 24일 순천 톨게이트 입구인 H주유소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찍혀 일각에서는 순천을 벗어났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유병언 장녀 프랑스서 체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됐다.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유 전 회장 일가 가운데 신병이 확보되기는 섬나씨가 처음이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날 섬나씨를 현지에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장 2차장검사)은 프랑스로 도피한 섬나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한 상태였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총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8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말다툼 끝 이웃사촌끼리 주먹다짐

쌍나팔

○…아파트 동 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 60대 남·여가 나란히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동대표로 선출된 이모(여·65)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모(65)씨에게 "선거관리위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 끝에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담당 경찰은 "이웃사촌인데, 선거때문에 이웃 간 정이 갈라져서야 되겠느냐"며 혀를 끌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 원룸(전대상대 2분 거리)
• 용봉지구, 미래도 APT 입구 코너
• 신축 4층, 룸 21개
• 1층 상가 2칸, 4층 고급주택
• 엘리베이터 완비, 전체 대리석 시공
• 월수입 900만원(년 1억800만)
• 매가 11억5천(보1억, 융4억)

★신축 원룸(전대후문 2분 거리)
• 중흥동, 신축 4층, 룸 12개
• 1층 점포1칸, 원룸10개, 4층 주택1개
• 월수입 450만원, 매가 6억5천

★나주 이창동 원룸(4층)
• 룸 19개, 월수익 570만
• 매가 4억2천(융1억, 보3천만)

원룸,상가,오피스텔 매매 (주)대신 010-6670-9800

★수완지구 상가(3층)
• 신한은행 뒤, 모아엘가 APT 상가 맞은편
• 주위 6000세대 APT 밀집
• 4층 건물중 3층, 85P
• 월수익 200만(년 2400만 수익)
• 매가 3억5천(융 2억5천, 보 3천)

★첨단지구 상가 2층, 62P
• 부영 APT 맞은편, 오션스파 2층
• 월수입 80만(1년 1760만)
• 매가 1억7천(융 9천, 보 1천)

★원룸형 오피스텔(쌍촌동)
• 운천역 1번 출구 3분거리
• 원룸(10P)-매가3400만(보200만 월27만, 융1천)
• 원룸(11P)-매가3500만(보200만 월27만, 융1천)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직원 모집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남 : 45세이하, 사무 및 기타
여 : 45세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급여는 상담후 결정